
梵魚寺 甲契補寺碑와 高僧眞影 研究

최춘욱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진영 보사내용과 현존 작품과의
상호관계 |
| II. 범어사 갑계보사비 | V. 맺음말 |
| 1. 범어사의 갑계 | |
| 2. 갑계보사비 현황과 내용 | |
| III. 범어사 소장 고승진영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 1. 고승진영의 현황 | |
| 2. 의상·원효대사진영 | |

I. 머리말

조선시대 승유억불 정책에 의해 쇠퇴의 길을 걷던 불교계는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원경제가 거의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전란 중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한 僧軍들의 활약은 불교의 위상을 재고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의 사찰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佛事를 진행하고 완수하기에 이른다.

부산의 고찰인 범어사에서도 조선후기 1614년에 중건된 대웅전을 비롯한 독성각에 이르기까지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불상·불화 조성 및 중수 등등의 갖은 불사가 있었음을 현존하는 정보문화재와 문헌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¹⁾ 이러한 사찰 불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었겠으나 그중 18세기 중엽에

이러려 사찰을 보호하고 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補寺 활동이 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진행된 보사 활동은 四溟大師 惟政의 甲會文에서 출발하였다고 알려져 있다.²⁾ 이후 사원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승려들은 감계를 조직하고 사재를 회사하는 등 보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寺誌 또는 補寺碑인데 특히 범어사의 경우 특이하게도 전국의 고찰 중 가장 많은 보사비가 있다고 한다.³⁾ 특히 『韓國佛教寺院經濟研究』에서는 범어사에 1863년부터 1947년까지의 모두 12기의 보사비가 있다고 하며,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에서는 모두 14기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위해 직접 현장 조사해본 결과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총 13기만 현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범어사 천왕문의 출입 앞쪽 향우측과 측면 향좌측에는 명문이 새겨진 면이 근래에 땅 속에 파묻혀 있다가 드러난 ‘丙子甲契補寺壇’의 보사비 <사진 1>과 ‘庚子甲契補寺壇’의 보사비 <사진 2>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 보사비들은 다른 보사비들과는 달리 보사 활동을 보다 자세히 새겨놓고 있는데 그중 元曉와 義湘 두 高僧의 眞影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특별히 주목되었다. 현재 범어사 정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고승진영 중에

-
- 1) 조선후기 범어사에서 행해진 불사에 의해 건립되거나 조성된 정보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으로는 大韓佛教 曹溪宗 第十四教區本寺 梵魚寺, 1989, 『梵魚寺誌』와 한국불교연구원, 1979, 『梵魚寺』, 일지사, 채상식, 서치상, 김창균 공저, 1994, 『범어사』 빛깔있는 책들 154, 대원사 및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2013, 『부산의 문화재』, 부산광역시 등을 꼽을 수 있다.
 -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340~341쪽
 - 3) 범어사 감계보사비와 관련된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金甲周, 1983, 『朝鮮時代 寺院經濟研究』, 同和出版社와 李載昌, 1993, 『韓國佛教寺院經濟研究』, 불교시대사 및 韓相吉, 2006,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景仁文化社가 있다.

는 의상대사진영과 원효대사진영이 현존하고 있고 이들 진영에 대한 학술조사 및 문화재지정조사에 임했던 필자로서는 갑계보사비와의 상호관계가 큰 관심사로 다가왔었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사찰계의 하나였던 갑계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범어사에 건립되어 있는 갑계보사비의 현황과 그 내용을 밝혀두고자 한다. 아울러 2기의 갑계보사비에서 원효대사 및 의상대사 진영을 보사하였다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범어사에 소장되어 있는 진영들의 파악과 함께 현존 진영과의 상호관계 및 정확한 조성연도 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범어사 갑계보사비

1. 범어사의 갑계

조선후기 사원경제는 兩亂을 거친 후에도 계속된 억압에 의해

4) 1999년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함께 한 범어사 소장 전적 및 유물 학술조사에 이어 2001년에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불화조사에 필자가 직접 참여하였으며, 현재 의상대사진영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거의 존재의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참혹하게 피폐해져 갔다.⁵⁾ 당시의 승려들은 관아나 향리들의 가림주구로 인해 승려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워 환속해 버리거나 깊은 산중으로 은둔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각종 잡역을 면제받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는 활동을 하였다.⁶⁾

즉, 승려들이 체납과 공납의 의무뿐만 아니라 토목공사 및 무기제조·採銀·屯田 경영 등 육체적인 노동력의 제공을 해야 하는 공역, 군역 등에도 동원되었지만,⁷⁾ 또 한편으로는 제지·짚신 삼기·누룩빚기 등의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승려들에 의한 사원경제의 자구적인 활동도 생겨났는데 상업활동과 私有 전답 조성, 각종 계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이를 통한 보사 활동이었다.⁸⁾

특히 수공업 등에 종사한 승려들 중 축적된 생산 기술을 통해 잉여물을 창출하고 이를 통한 자산 증식 및 私田을 경영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소속 사찰의 보사를 위해 뜻을 모아 계를 조직한 후 獻金·獻番하거나 불사를 거행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존속했던 사찰에서는 열악한 사원경제 속에서도 수많은 불사가 행해졌는데 그 이면에는 신도들의 시주에 의한 불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속 사찰의 승려들의 보사 활동에 의해 진행된 불사였다.

조선후기 사찰계는 신앙활동을 위한 계와 보사 활동을 위한 계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사찰계는 갑계를 비롯하여 念佛契, 佛

5) 李載昌, 1993, 『앞의 책』, 273~276쪽

6) 李載昌, 1993, 『앞의 책』, 194~195쪽

7) 金甲周, 1983, 『앞의 책』, 116쪽

8) 이봉춘, 2001, 「조선불교의 경제현실과 그 대응활동」 『대각사상』 제4집, 대각사상연구원, 137~ 143쪽

糧契, 燈燭契, 門徒契, 廳契, 지장계 등 모두 25종 232건이 파악되어지고 있다.⁹⁾ 그중 보사 활동의 대표적인 사찰계이자 가장 많이 결성된 계가 갑계이다. 사찰계로서의 갑계는 그 발생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머리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명대사 갑회문이 시초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선중기부터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즉, 사명대사의 갑회문에서는 다섯 가지 행복을 설하며 동료 승려들에게 갑회를 통회 은혜를 갚고 인연을 돈독히 할 것을 서원하고 있다.

본래 사찰에서의 갑계는 일찍부터 성립된 민간에서의 갑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가 이익 추구를 했던 것처럼 갑계 또한 계원간의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집단으로 조직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의 갑계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조선후기 사찰에 거주하는 동갑 또는 비슷한

9) 韓相吉, 2006, 『앞의 책』, 55~67쪽

10) 『사명대사집』 권6 잡문에 수록된 사명대사가 20세를 전후한 시기에 쓴 것으로 보이는 甲會文을 여기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지금 滅劫에 태어나 포대기 속을 면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는데 우리는 20 여 년을 살았으니 이것이 그 첫째의 행복이다. 우리는 공부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런 蒼黃한 때를 당해서도 마침내 이 몸을 잃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둘째의 행복이다. 영원한 과거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온갖 세계로 돌아다니다가 천만다행으로 이 바른 법을 만났으니 이것이 그 셋째의 행복이다. 불붙은 집 같은 이 세상이요, 하루살이나 물거품이나 허깨비 같은 이 몸이라 한 달에도 입을 열고 크게 웃어 보는 사람이 얼마 안되는데 우리는 이런 仙山에 모여 이런 法會에 같이 참석하여 웃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놀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넷째의 행복이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그 몸을 완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장님이나 귀머거리나 병어리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귀와 눈이 완전하고 남자로서의 형상을 완전히 갖추어 사람의 버림을 받지 않으니 이것이 그 다섯째의 행복이다. 이런 다섯 가지 행복을 갖추었거늘 어찌 짐승처럼 헛되이 났다 죽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벗들은 부디 과거의 저축을 아끼지 말고 천지와 성현의 끝없는 은혜를 갚는 동시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원함으로써 태평천하를 이루고 이내 한량없는 미래 세상에서도 영원히 형제가 될 인연을 만들어야 하겠다. 원컨대 우리 좋은 벗들은 다시 머리를 돌려 스스로 생각하시라. 동국역경원, 1970, 『한글대장경』 152, 동국역경원, 244~245쪽

연령의 승려들이 조직했던 同甲契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사찰 승려 가운데 동갑 또는 출생연도가 비슷한 또래의 승려들이 대개 20세 전후에 갑계를 조직하였다. 또한 계원들은 매월 또는 매년 일정 자금이 모은 후 그 자산으로 이자를 받아 그 계금으로 사찰을 보수하거나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갑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하자면 12地神 중 子년생에서 巳년생까지, 午년생에서 亥년생까지 각각 1단체로 묶어 조직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계의 운영은 계원들이 낸 入契金과 사찰의 찬조금을 기본금으로 삼아 殖利도 하고, 계원들의 공동노력으로 절의 공사를 맡아 생기는 소득을 자금으로 바꾸어 기본금을 늘리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계원들이 늙으면 땅을 사서 절에 바치거나 그 밖에 사찰에서 필요한 불사나 도구 따위를 계금으로 마련하는 등 사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 특히 조선후기 경상도 지역 사찰에서 많이 결성된 갑계는 19세기에 가장 성행하였으며 이 갑계는 해방 이후까지 존속되기도 하였다.¹¹⁾

전국 사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여주는 범어사 갑계의 경우 모두 25건이 조직되어 총 32번 보사 활동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를 참고하여 다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¹²⁾

11) 사명대사의 갑회문에 이어 영조 39년(1763)에는 瑜伽寺 병진년생부터 계해년생의 8년차 계원들로 구성된 갑계원들이 재물을 회사하여 사찰을 보수하였으며, 정조 8년(1784)에는 雙溪寺 갑계원들이 보화루를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후에는 범어사의 갑계가 가장 활발하였다고 한다. 李載昌, 1993, 『앞의 책』, 226~236쪽

12) 韓相吉, 2006, 『앞의 책』, 332~343쪽

<표 1> 범어사의 집계

연번	명 칭	보사 연도	전 거	보사비 현존 有·無
1	甲子甲契	1812년 4월	「梵魚寺普濟樓重修記」 『梵魚寺誌』, 102쪽	
2	丙子甲契	1812년 4월	上 同	
3	戊子甲契	1812년 4월	上 同	
4	庚午甲契	1812년 4월	上 同	
5	甲午甲契	1812년 4월	上 同	
6	壬午甲契	1812년 4월	上 同	
7	丙午甲契	1812년 4월	上 同	
8	庚子甲契	1812년 4월	上 同	
9	壬子甲契	1819년	「梵魚寺壬子甲有功記」 『梵魚寺誌』, 124~125쪽	
10	丙午甲契	1858년	「丙午甲有功記」 『梵魚寺誌』, 297~303쪽	
11	甲子甲契	1860년	甲子甲員補寺功德碑	有
12	丙子甲契	1863년 8월	丙子甲稷補寺壇	有
13	壬午甲契	1866년	「壬午甲有功記」 『梵魚寺誌』, 136~137쪽	
14	戊子甲契	1874년 1월	戊子甲補寺壇	有
15	甲午甲契	1880년 4월	甲午甲補寺有功壇	有
16	丙子甲契	1882년 3월	梵魚寺 觀音殿 觀音菩薩圖 畫記	
17	庚子甲契	1882년 3월	上 同	
18	庚子甲契	1883년 10월	「東萊梵魚寺大雄殿佛事有功記」 『梵魚寺誌』, 150쪽	
19	丙子甲契	1883년 10월	上 同	
20	庚子甲契	1891년 12월	庚子甲補寺壇	有
21	壬子甲契	19세기말	壬子甲補寺壇	有
22	戊午甲契	1905년 春	戊午甲補寺壇	有
23	丙午甲契	1906년 10월	「八相羅漢獨聖閣重建 及 諸聖像新畫成記」 『梵魚寺誌』, 204~205쪽	
24	戊午甲契	1906년 10월	上 同	
25	丙午甲契	1910년 4월	丙午甲稷補寺壇	無
26	甲契	1915년 3월	「禪刹大本山梵魚寺圓應堂重建上樑文」 『梵魚寺誌』, 227~231쪽	
27	甲子甲契	1915년 11월	甲子甲補寺有功壇	有
28	庚午甲契	1916년 冬	庚午甲補寺壇	有
29	丙子甲契	1928년 5월	丙子甲補寺壇	有
30	壬午甲契	1941년 4월	壬午甲補寺壇	有
31	戊子甲契	1947년 5월	戊子甲補寺壇	有
32	甲午甲契	1947년 5월	甲午甲補寺壇	有

이처럼 범어사 갑계는 1812년 4월에 보사 활동을 한 갑자갑계부터 1947년 5월에 진행된 갑오갑계의 보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25건이 조직되었고 모두 32번 진행되었다. 갑계가 25건 조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위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병자갑계의 경우에는 1756년에 전후에 출생한 승려들이 조직하여 1812년 4월에 보사 활동을 한 것과 1816년 전후에 출생한 승려들이 조직하여 1863년, 1882년 3월, 1883년 10월에 수행한 보사 활동 등 모두 2건에 4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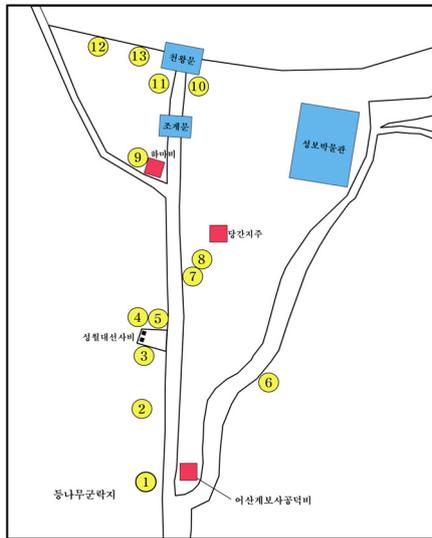
병오갑계의 경우는 1786년 병오년 전후에 출생한 승려들이 조직하여 1812년 4월에 보사 활동한 것과 1846년 전후에 출생한 승려들에 의해 조직된 병오갑계가 각각 1858년, 1906년 10월, 1910년 4월에 보사 활동을 한 것 등 모두 2건에 4번이다. 또한 경자갑계의 경우에도 1780년 전후 출생 승려들이 조직하여 1812년 4월에 보사 활동한 것과 1840년 전후에 출생한 승려들에 의해 조직된 경자갑계가 1882년 3월, 1883년 10월, 1891년 12월 등 모두 2건에 4번의 보사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무오갑계의 경우는 1858년 전후에 출생한 승려들이 조직한 후 1905년과 1906년에 보사 활동을 했다. 따라서 병오갑계와 경자갑계 및 병자갑계는 각각 2건, 무오갑계는 1건이 조직된 후 보사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모두 25건이 되며, 특히 19세기 범어사에서 조직된 갑계의 왕성한 보사 활동은 뒤에서도 살펴볼 것이지만 범어사가 지금과 같은 사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했던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갑계보사비의 현황과 내용

사찰의 소속 승려들이 갑계를 운영하여 식리된 금전이나 토지

를 본사에 시납하여 불사가 거행되었을 때 이를 기념하는 보사비를 건립하였다. 보사비의 첫머리에는 어느 干支를 기준으로 갑계를 조직한 補寺壇임을 먼저 새기고 계원과 불사 내용 또는 시납 내용, 그리고 보사비 건립 연대가 새겨져 있다.

<표 2> 범어사 갑계보사비 분포도



범어사의 갑계보사비들은 대부분 노면에 드러나 있는 자연석을 바위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일면만 치석한 후 보사 내용을 새겨놓고 있다. 이에 반해 범어사와 가까운 양산 통도사에 건립된 보사비의 경우에는 1898년의 壬子甲稷員補寺有功碑와 1905년의 戊午甲契員補寺不忘碑 2기가 통도사 浮屠園 碑林의 2열 4번째와 5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통도사 보사비들은 2

기 모두 정면 중앙에 제목을 크게 새기고 좌우에 관련 글과 배면에는 보사 내용과 계원을 기록하고 있는 비석의 형태이다. 따라서 보사비 건립 형태에 있어서 범어사의 보사비는 주로 사찰에서 건립되는 비와는 확연히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범어사 갑계보사비는 어산교를 지나 천왕문에 이르기까지의 사찰 진입로 주변 좌우에 <표 2>와 같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 보사비는 대부분 자연석 한쪽 면을 편평하게 치석한 후 보사비문을 각자하고 있는데 현재 확인되는 보사비는 모두 13기이며, 그중 1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성연도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범

어사 어산교를 지나 등나무 군락지 탐방로 입구에는 1928년에 건립된 병자갑계보사비 1기가 있고 이어서 바로 위쪽과 성월대 선사 공덕비 아래쪽에는 1874년의 무자갑계보사비와 1916년에 건립된 경오갑계보사비 등 2기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성월대선사 공덕비 옆 향우측에는 1石으로된 큰 바위 면을 상하 양분하여 상단에 1940년의 갑오갑계보사비를, 하단에 1915년의 갑자갑계보사비를 각각 새겨놓았다.

범어사 조계문으로 이어진 길의 오른쪽에는 3기의 보사비가 있는데 사리탑시주방명비 뒤에는 1941년의 임오갑계보사비, 세존사리탑이거공덕비 앞에는 1860년의 갑자갑계보사비, 또한 당간지주 앞에는 1947년의 무자갑계보사비가 각각 건립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계문 앞 하마비 옆에도 1947년의 갑오갑계보사비 1기가 있기도 하다. 나머지 4기의 보사비는 천왕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 천왕문 앞쪽 향우측에는 1863년에 건립된 병자갑계보사비가 있다. 또한 천왕문 앞쪽 향좌측에는 조성연도가 불명확한 임자갑계보사비가 있으며, 천왕문과 연결된 축대의 중간 지점에는 큰 바위 상면을 별도로 치석하여 장문을 새겨놓은 1905년의 무오갑계보사비가 자리를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천왕문 바로 옆인 향좌측에는 승정기원후 57년에 건립하였음을 기록한 경자갑계보사비가 세워져 있다. 이들 보사비들은 자연석들과 함께 뒤섞여 있거나 수풀에 가려져 있었고 또한 최근까지 토사에 매몰되어 있기도 하여 정확히 몇 기가 어디에 건립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위치를 명확히 밝혀둘 수 있게 되었다.

범어사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13기의 갑계보사비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현존 범어사 감계보사비

연번	명 칭	조성연도	보사 내용
1	丙子甲補寺壇	佛紀 2955年(1928) 戊辰 5月日	性潭堂 奉觀 등 19人, 獻畝 50斗, 金 500圓
2	戊子甲補寺壇	崇禎紀元後 5 甲戌(1874) 正月日	僧統尙文 등 11人, 獻畝 127斗地, 金 700兩 納寺
3	庚午甲補寺壇	世尊應化 2943年(1916) 丙辰 冬	幻凝堂 奎彦 등 13人, 沓 79斗, 金 800圓
4	甲午甲補寺有功壇	崇禎紀元後 5 庚辰(1880) 4月日	幻峯堂 斗瓚 등 16人, 佛器 59, 立沓 170斗地
5	甲子甲補寺有功壇	世尊應化 2942年(1915) 乙卯 11月日	大隱堂 敬律 등 14人, 入沓 84斗落, 入金 100圓, 入租 35石
6	壬午甲補寺壇	辛巳(1941) 4月日	一海堂 致和 등 16人, 入沓 47斗地, 入金 440圓
7	甲子甲員補寺功德碑	崇禎紀元後 4 庚申(1860)	錦海堂 修璘 등 13人, 華嚴經 1秩, 沓 295斗
8	戊子甲補寺壇	佛紀 2974年(1947) 丁亥 5月日	前任持 九海堂 斗翰 등 20人, 獻畝 50斗地, 獻金 5,000圓
9	甲午甲補寺壇	佛紀 2974年(1947) 丁亥 5月日	幻雲堂 海管 등 38人, 獻畝 70斗地, 獻金 5,000圓
10	丙子甲契補寺壇	崇禎紀元後 4 癸亥(1863) 8月日	東谷堂 知訓 등 29人, 阿彌陀佛碑 新豎 元曉義湘兩大和尚 眞影新造, 十王展彩 入沓 300斗
11	壬子甲補寺壇	19세기말	資憲 晦玄堂 등 11人, 入沓 150斗, 錢 2,000兩, 元曉 入沓 10斗
12	戊午甲補寺壇	光武 9年(1905) 乙巳 春	古鏡堂 善股 등 26人, 入沓 81斗, 錢 1,300兩, 八相殿重修, 內院禪會 極樂地藏稷 各 100兩
13	庚子甲補寺壇	崇禎紀元後 57年 辛卯 至月日	藤庵堂 瓚助 등 12人, 納沓 256斗落, 錢670兩獨聖閣新造, 100兩元曉義湘兩祖師眞影, 90兩持殿石函

범어사에는 『韓國佛教寺院經濟研究』에서는 12기,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에서는 14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총 13기가 현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韓國佛教寺院經濟研究』에서는 6번 1941년의 임오갑보사단을 임자갑보사단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으며, 8번 1947년의 무자갑보사단과 조성연도가 불명확한 11번 임자갑보사단 등 2기의 보사비는 누락한 채 1910년 庚戌에 건립되었다고 하는 병오갑계보사단 보사비만 언급하고 있다.¹³⁾ 더욱이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에서 1910년 4월의 병오갑계의 보사비가 있다고 한 것은 『韓國佛教寺院經濟研究』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그 보사비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무튼 범어사에 건립된 갑계보사비는 전국의 어느 사찰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조선후기 불사 및 보사 활동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보사비의 현존 유·무와 내용 및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범어사 보사비 건립 및 내용에 의해 대체로 19세기 후반부터 해방 이후까지 갑계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과 그 계원들이 많을 때는 수 십 명에 이르렀지만 대부분 20인 이하의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확인되어진다. 그리고 조선후기 및 구한말까지는 주로 사찰의 보수 및 유지와 관련된 명목으로 갑계가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사찰의 보사에 중점을 두고 헌답 또는 헌금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13) 병오갑계보사단의 경우 『韓國佛教寺院經濟研究』에서 庚戌(1910?) 4月 立하였고 晚霞堂 漢明 등 15인이 觀音殿麻旨 沓 30斗 5刀, 寺中入沓 127斗地, 錢 2,800兩을 보사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Ⅲ. 범어사 소장 고승진영

1. 고승진영의 현황

진영은 승려의 초상화로 영탱으로도 불리며 사찰의 影閣에 봉안되어져 있다. 또한 특별히 조사들의 진영만 따로 모아 봉안한 祖師堂 혹은 國師들의 진영을 봉안한 國師殿 등이 있기도 한다. 이들 진영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성된 것으로 보이나 현존 작품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면 그 기록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후 진영은 師資相承의 증표로 法統을 확인하고 受戒를 목적으로, 또는 각 종파 내의 가르침과 전통적 유대를 증명하기 위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돌아가신 스승을 기리는 목적에서 제작되었다.¹⁴⁾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당대 고승대덕의 진영이 본격화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선종에 의한 스승의 초상화의 제작이 유행하였으며,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면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淸虛 休靜·四溟 惟政·騎虛 靈圭 등 국가에 공을 세웠거나 문과 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승려, 사찰의 창건주 등으로 진영제작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19세기 이후에는 종파, 문과와 상관없이 각 사찰의 조실, 주지, 고승의 진영까지 제작되기도 하였다.¹⁵⁾

진영의 형식은 크게 2형식으로 의자에 앉은 모습의 全身交椅坐像과 방석이나 바닥에 앉은 바닥跏趺坐像으로 구분된다. 전신 교의좌상은 대체로 좌안7분면 또는 8분면에 한 손에는 拂子나

14) 김정희, 2010, 「조선후기 畫僧의 眞影像」 『강좌미술사』 35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70쪽

15) 김정희, 2010, 「앞의 논문」, 70쪽

拄杖子 등을 권 후 흔히 발을 足座臺에 두고 의자에 앉은 형식이며, 바닥가부좌상은 무늬가 있는 돛자리인 화문석을 깔고 그 위의 방석에 결가부좌한 대체로 좌안7분면의 전신좌상에 왼손으로는 주장자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엄주를 쥐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은 형식이다.¹⁶⁾

범어사에 소장되어 있던 역대 고승들의 진영은 필자가 1999년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주관 범어사 소장 전적 및 유물 학술조사 때 함께 참여하여 모두 41점을 확인하였다.¹⁷⁾ 범어사 소장 유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들 고승진영은 이후 범어사 정보박물관에서 2002년에 발행된 범어사 정보문화재 해설집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도 하며,¹⁸⁾ 또한 범어사 고승진영의 현황과 특징에 관해서는 동아대학교 박은경 교수가 논문을 쓰기도 하였다.¹⁹⁾ 그리고 범어사 정보박물관 인터넷 사이트에도 32점의 고승진영이 실려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1999년에 종무소 옆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진영들을 처음 조사를 할 당시 인쇄본이었던 성월당일전대사진영을 제외한 범어사정보문화재 해설집에 언급되어 있는 40점의 影題와 影讚 및 조성시기를 다시 소개하면 <표 4>와 같다.

16) 조선미, 2007, 「조선시대 초상화의 유형과 특징」 『화폭에 담긴 영혼-초상』, 국립고궁박물관, 77쪽
17)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범어사소장 전적 및 유물 학술조사보고서』,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4~196쪽
18) 범어사정보박물관, 2002, 『범어사정보문화재 해설집』, 범어사정보박물관, 49~67쪽
19) 박은경, 2002, 「禪刹大本山 梵魚寺 소장 불교미술품」 『考古歷史學志 17·18合輯』, 동아대학교박물관, 605~630쪽

<표 4> 범어사 진영 현황

연번	작품명	影題	畫記 또는 影讚	造成年代
1	義湘大師眞影	新羅國師華嚴宗主義湘大師眞	(화기) 乾隆三十二年 奉安于金井山梵魚寺 化主山中大德若雨 良工守一	1767년
2	元曉大師眞影	海東初祖華嚴講師元曉大和尚之眞影		19세기
3	四溟大師眞影	大匡輔國崇祿大夫兩國都摠領大禪師眞影		19세기
4	海松堂草英大師眞影	海松堂草英大禪師之眞影		19세기
5	海雲堂敏悟大師眞影	海雲堂敏悟大禪師之眞影		19세기
6	靑巖堂演白大師眞影	靑巖堂演白大禪師之眞影		19세기
7	友雲堂眞熙大師眞影	友雲堂眞熙大禪師之眞影		19세기
8	蔚菴堂敬儀大師眞影	蔚菴堂敬儀大禪師之眞	贊曰 師之時也 粹仁是率 我聞請質 師之順也 絢綺一幅 薄夫可肅 不殺之寶 孚豚魚吉 後昆孝思 以資淨域 不置永錫 清潭門人倚典焚香不律	19세기
9	月波堂震默大師眞影	月波堂震默大禪師之眞		
10	洛城堂就奎大師眞影	是庵重創大功德主洛城堂就奎之眞	贊曰 瞻彼金陵 篤生賢傑 厭彼世繁 龍飛鳳舞 離犀出類 隱於叢林 緣重慈寺 希世異績 兩世補菴 現垂慈蔭 弘之彌深 大功德主 所賴優厚 孰敢不承 衆禪并言 遺影在堂 天衣拂石 莫若褒增 宛若流恩 永耀山門	19세기
11	退隱堂大師眞影	扶宗樹教退隱堂大禪師之眞	贊曰 悟添宗匠後 平素知 今茲涅槃 示寂 登大老慈愧愈 心貳句 噫上天 載無聲無臭 居食他方 這箇言外別割 眉毛裝帶 系行筇蹄付授 弗殊樞衣擁帚 瞻仰拜候 後人戒悟拜冥	19세기
12	海城堂大師眞影	海城堂大禪師之眞影		19세기
13	玄鑑堂妙全大師眞影	此寺重創主玄鑑堂妙全大禪師之眞影		19~20세기
14	龍坡堂大師眞影	扶宗樹教龍坡堂禪師之眞影	贊曰 後人九鳳知和謹書 運還像季 惟師任之 借筏教海 正法難救 慧命是佑 秉燭禪園 宗說登壇 喚惺之孫 不像者存 極李滿門 虎巖之子 何生何死	19세기

연번	작품명	影題	畫記 또는 影讚	造成年代
15	金峯堂大師眞影	大覺登階金峯堂尙文之眞影	金峯長老願惟深扶護梵刹供 佛其 心依稀清範傳神于中死生 世二一亘 晴空忽悟卽是物 形 青山日晚碧海 長洲 門末鏡虛惺牛焚香謹撰	19세기
16	虎巖堂大師眞影	扶宗樹教國一大禪師虎巖堂 之眞	贊曰 前正言宋翼輝撰 遺形如嶮 遽 色與相 一幅傳神喚惺師之入室也 西 山老之傳鉢也猶若有之圖 貌之安 氣 之肅 緣塵之未盡拂者耶 于以驗神之 佚 于以徵示于其 徒道之崑 永世認 世出之菩薩	19세기
17	信庵堂戒弘大師 眞影	是庵重創主信菴堂戒弘大禪 師之眞	卽世諦談實相在火宅見寶洲 生滅中 不生滅花白開自流 布雲罔繁謹撰	19세기
18	南坡堂彩佑大師 眞影	弘覺登階南坡堂彩佑大禪師 眞		19세기
19	喚惺堂大禪師眞 影	海東佛日喚惺堂大禪師之眞		19~20세 기
20	雪松堂大師眞影	□□□□紫國一都大禪師兩 宗正淨雪松堂		19세기
21	一鳳堂敬念大師 眞影	大禪師兼大律師一鳳堂敬念 眞影	臨濟之兒孫西山之後裔戒律清淨品行 出衆度人無數實千載之大師 龍城震 鍾謹撰	20세기
22	映月堂大師眞影	映月堂大禪師眞影	來時無爲處 去是亦無向 去來知無常 大放眞金光 映月禪師 影讚	20세기
23	龍虛堂英雨大師 眞影	龍虛堂英雨大禪師眞	龍吹風雲造化岩舍森羅萬像 生來也 電擊長天生去也波證六海 往沒雖豐 波動靜常一源如何 是龍震之眞面目 噴 復彌頂上滄海波心 雲門大人 九 海斗翰 謹誌	20세기
24	龍城大師眞影	龍城大宗師眞影	我是汝耶 汝是我耶 草堂春暖 百 花爛漫開 狗子無佛性趙州妄分別東湖春水綠白 鷗任浮沈 自述	20세기
25	雲湖禪師眞影		雲湖禪師大願唯深扶護梵刹 超脫有 無去住皆平物無是非 死生不二其功 泰虛長空之德 山高水長	20세기
26	梨山堂爰悟大師 眞影	叢林大德一山摠領梨山堂爰 悟大禪師之眞	梨山元來未曾棲留有人家第二 爲花 紅柳綠亂山裏巧羽飛 來送清音 白龍 城 讚	20세기
27	惺月堂一全大師 眞影	惺月堂一全大禪師之眞	一箇無位漢三頭六臂打破虛 空更无 回互 咄 清虛門人石友善化謹贊	20세기

연번	작품명	影題	畫記 또는 影讚	造成年代
28	秋潭堂大禪師眞影	秋潭堂大禪師眞影	眞空無生因會而生其生也月現清秋 妙有不滅緣息而滅其滅也影落寒潭 頌曰 迥脫根塵 無我無人 流水今日 明月前身	20세기
29	石牛堂大師眞影	石友堂大和尚影幀	金井山人 自覺性 妙音之顯	20세기
30	湛海堂德基大師眞影	叢林大德一山總領湛海堂德基大禪師之眞	湛之湛芳湛徹十方海之海芳海無邊際 德之德 芳德勝乾坤基之基不變易影 之影芳 影即奇妙然雖如是影從何起 南北東西竟無 本體无本體芳月白風 清山高水長鶯唳鶯語 怎麼妙理有誰 知之 咦 嗣法一鳳敬念焚香謹贊	20세기
31	慧月堂大師眞影	舉揚宗來斥邪顯正慧月堂大禪師眞影		20세기
32	龍谷堂典興大師眞影	龍谷堂典興大禪師影幀	龍之龍芳風雲自在在谷之谷芳水 月直 遙以水流之無窮証此雲遊 之有作耶 畢竟是周甚麼雲忽於 龍月滿於谷 呵 一笑雲月蘆花回 醉白歸來金井 太平歌 雲鷺山道友九河題	20세기
33	慧惺大師眞影	慧惺大和尚眞影	和尚前因般若薰習之力雲水生涯萬 行頭陀入寺補公作事皆平共功不 朽 於千照無相苑朗呈槃城	20세기
34	鏡虛堂惺牛大師眞影	中興祖道大振宗風鏡虛堂大禪師眞影		20세기
35	一光堂大師眞影	一光堂大禪師之眞	自題 趙州何多事漫說栢樹子 綠楊千 絲裏黃鶯任上下 (臨終揭) 法王仗劍 立靈臺 他僕一光脫殼埃 父母未生前 面目 清風徐拂月明來	20세기
36	一光堂大師眞影	一光堂大禪師之眞 自題趙州何多事漫說栢樹子 綠楊千絲裏黃鶯任上下	(臨終揭) 法王仗劍立靈臺 他僕一光脫殼埃 父母未生前面目 清風徐拂月明來	20세기 (유화)
37	東山大宗師眞影			20세기
38	東山大宗師眞影	東山大宗師眞影	元來未曾轉豈有第二身 三萬六千朝 反覆只這漢 自述	20세기
39	東山大宗師眞影			20세기
40	齊雲堂水山大宗師眞影			20세기 (유화)

현재 범어사 정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이들 진영들은 1767년에 조성된 의상대사진영을 제외하면 주로 19세기와 20세기에 조성되어졌다. 19세기에 제작된 진영 중에는 8번 울암당경의대사진영이 苧本彩色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絹本彩色이 많으며 20세기에 제작된 진영들은 油畫 작품인 일광당대사진영과 제운당수산대종사진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綿本彩色이 많은 편이다. 또한 이들 진영 중에는 동일 밑그림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작가에 의해 제작된 작품들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²⁰⁾

이처럼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들 진영들은 조선후기 兩亂을 겪은 후 전국의 각 사찰에서 각종 불사가 행해졌는데 그중 사찰의 개창조나 중흥조 및 역대 주석했던 대선사를 추앙하고 기리기 위해 제작되어졌다. 따라서 범어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승진영들 또한 18세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시기에 범어사 창건과 관련이 있는 의상대사를 비롯하여 국가에 공을 세웠거나 조선불교의 중흥에 힘쓴 승려들, 그리고 범어사에 주석 스님들의 진영들이다.²¹⁾

2. 의상·원효대사진영

의상대사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종조이자 『범어사 창건 사적기』에서 범어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승려이다. 범어사 정보박물관에는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어 있는 의상대사진영이 소장되어 있으며 진영에 대한 해설은 『부산의 문화재』와 『梵魚寺聖寶文化財 解說集』에 실려 있기도 하다.²²⁾<사진 3>

20) 박은경, 2002, 「앞의 논문」, 621쪽

21) 범어사정보박물관, 2002, 『앞의 책』, 49쪽

2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2013, 『부산의 문화재』, 141쪽

범어사정보박물관, 2002, 『앞의 책』, 49~50쪽



이 진영은 비단 3폭을 연결하여 한 화폭을 이루고 있는 견본 채색의 형식이며 크기는 가로 91.3cm, 세로 124.3cm이다. 화면 중앙에는 3곡으로 펼쳐진 병풍을 배경으로 하여 신발을 벗은 채 높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위에 걸가부좌한 의상대사를 全身倚子像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표현된 모습은龍頭 장식이 있는拂杖子를 오른손으로 쥐고 있으며 왼손으로는 수술을 쥔 채 향우측을 바라보고 있는右顔7分面의 양식이기도 하다. 황백색으로 채색된 얼굴의 윤곽선은 담묵으로 처리하였고 화면 상단 좌우에 풍대가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 바탕은 황토색 위에 백옥색을 덧칠하였으나 박락이 많이 진행된 편이다. 양쪽龍頭 장식이 있는 등받이의 붉은 법피 가장자리와 청색 장삼에 붉은 색과 녹색으로 이루어

진 가사 끝단에는 보상화문으로 보이는 문양대를 그려 넣어 화면에 화려함을 더 하고 있다. 또한 의자 앞쪽에는 木理文이 그려진 足座臺 위에 채색된 唐鞋로 보이는 신발이 놓여 있기도 하다.

화면 향우측 상단 가장자리에는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新羅國師華嚴宗主義湘大師眞'이라고 쓴 影題가 있으며 화면 향좌측 하단 가장자리에는 붉은 바탕에 '乾隆三十二年 奉安于金井山 梵魚寺 化主山中 大德若雨 良工守一'라고 묵서된 화기가 있다. 따라서 이 진영은 범어사에서 守一에 의해 1767년에 제작되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良工인 수일은 1759년 통도사 대광명전 비로자나불회도 제작에 참여한 守日이라는 화승으로 추정되지만,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791년의 비로자나불회도 施主秩에 守一이라는 법명이 있어 범어사에 주석했던 승려로 파악된다.²³⁾ 특히 수일은 의상대사 진영을 제작한 같은 해인 1767년에 抖薰·性澄·悅幸·通益·守性·定安 등과 함께 통도사 괘불도를 조성에 참여하였으며, 1817년 범어사에서 신중도를 조성할 때에는 證明을 맡기도 하는 등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치는 시기에 경상도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 화승이기도 하다.

범어사 소장 불화로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조성된 의상대사진영은 조선후기 19세기에 정형화되는 고승진영에 앞서 제작된 진영일 뿐만 아니라 진영의 절대연대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효대사진영은 널리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상대사와 함께 신라시대 대표적인 고승으로 추앙받는 원효대사를 그린 진영이다.<사진 4>

이 진영 역시 비단 3폭을 연결하여 한 화폭을 이룬 견본채색

23) 최춘욱, 2010, 「부산지역 고찰의 불화연구」 『博物館研究論集』 15, 부산박물관, 137쪽

의 형식이며 크기는 가로 93.5cm, 세로 125.2cm이다.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진영은 등받이와 팔걸이 및 호족형의 다리로 구성된 의자에 오른손으로는 장염주, 왼손으로는 석장을 쥔 채 두 발을 목리문이 있는 족좌대에 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의 정면관에 가까운 좌안9분면의 전신의자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얼굴은 살색으로 채색한 후 바림하여 입체감을 주었는데 가늘게 뜬 눈과 큰 코 및 귀, 그리고 양 입가를 올려 미소를 머금게 한 노승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짙은 군청색의 장삼과 녹색의 의자 등받이 범피 및 붉은색 가사를 서로 보색 대비되게 채색한 것이 조성 당시의 채색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금박 처리된 고리장식으로 연결된 붉은 가사에는 옷주름을 중첩되게 표현하여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화면을 1:1로 양분하여 바닥에는 섬세하게 무늬가 잘 묘사되어 있는 화문석이 있고 배면에는 연분홍색에 가까운 바탕색에 연보라색의 斜格卍字 무늬를 充填시켰다. 이러한 세부 묘사와 함께 등받이의 녹색 천 가장자리 속의 연화당초문과 등받이 향좌측 끝부분에 걸쳐져 있는 拂杖子の 수식과 수술로 장식된 머리 부분이 이 진영의 전체화면의 격조와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화면 향좌측 상단 가장자리에는 붉은 색 바탕의 화제란을 마련한 후 ‘海東初祖華嚴講師元曉大和尚之眞影’이라는 영제를 세로로 길게 묵서되어 있다.

IV. 진영 보사내용과 현존 작품과의 상호관계

범어사 천왕문 입구 향좌측에 위치한 경자갑보사단의 보사비에는 등암당 찬훈을 비롯한 12인이 갑계를 조직하여 독성각의

신조 및 원효·의상대사 양 조사의 진영을 승정기원후 57년 신묘에 제작하였다는 보사 활동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기록이 새겨져 있다.

「庚子甲補寺壇 藤庵堂瓚勛 海山堂壯佑 海菴堂道成 月影堂富潤 水龍堂道英 槲湖堂學仁 檜峰堂奇英 蓮雲堂敬悟 前僧將大周 前書記允義 前首僧大王 都監友峰堂永願 納沓二百五十六斗落 錢六百七十兩獨聖閣新造 一百兩元曉義湘兩祖師眞影 九十兩持殿石函 崇禎記元後五十七年 辛卯至月日」

이 보사비를 건립한 조성연도 중 승정 기원은 1628년으로 여기에 57년을 더하면 1684년 또는 1685년이며 갑자년과 을축년이 비정되어지고, 또한 승정 연호가 끝나는 1644년에서 57년을 더하더라도 1701년인 신사년이 되므로 잘못된 오기로 보인다. 경자갑계보사비 건립 당시의 간지가 신묘년이라는 것은 착오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승정기원후의 처음으로 돌아오는 신묘년은 1711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67년을 57년으로 착각하여 오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진영과 함께 독성각을 新造했다고 하는 기록을 참조하면 이 보사비의 건립 시기는 훨씬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 독성각은 팔상전과 나한전과 함께 현재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면 7칸 측면 1칸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가구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독성전의 경우 1904년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가 저술한 『韓國建築調査報告』에서 범어사의 가람배치에 대한 범어사 평면도에서 서측의 팔상전과 동측의 나한전 사이에 天台門이라는 글이 적혀 있을 뿐 건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²⁴⁾ 『梵魚寺誌』 속의 「八相羅漢獨聖閣重建及諸聖

像新畫成記」에서는 光武 9년(1905)에 60여 탕화와 함께 이 건물을 중건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마쳤음을 기록하고 있다.²⁵⁾ 더욱이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친 팔상독성나한전 해체수리공사 시에 각각의 건물 종도리 밑 부분에 흙을 파고 그 속에 상량문을 넣어 둔 것을 발견되었는데, 독성전 記文의 경우 「東萊金井山梵魚寺天台殿重建上樑文」이라는 제목과 함께 緣記와 緣化秩, 本寺秩 및 '광무 10년 병오 2년 2월 초9일에 石應沙彌達玄이 삼가 쓴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²⁶⁾

따라서 지금의 독성각이 1906년에 새롭게 건립되었다고 가정할 때 1906년과 가까운 신묘년은 1891년이므로 경자갑보사단의 승정기원후 57년 신묘에 독성각을 신조했다는 기록은 아마도 지금과는 다른 독성각 건물이 있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경자갑보사단 계원 중 연운당 경오, 해암당 도성, 월영당 부운, 해산당 장우, 수룡당 도영 등은 「梵魚寺諸宗師靈祝文」 속에 기록되어 있는 先師들이다.²⁷⁾ 또한 「禪刹大本山梵魚寺案内」에서는 조선후기 범어사 주지를 역임했던 168대 僧統 永願, 170대 敬悟, 173대 學人이 등장하고 있고 1874년에 건립된 무자갑계보사비에서 갑계를 주도한 尙文이 158대 승통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년 후에 영원이 168대 승통을 지냈고 1905년 전후한 시기에 177대를 끝으로 승통시대가 없어지므로 경자갑계보사비는 188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²⁸⁾

따라서 경자갑계보사비 속의 승정기원후 57년은 오기이며 신

24) 세키노 타시(關野 貞), 1904, 『韓國建築調査報告』, 동경제국대학 출판부, 183쪽

25) 大韓佛敎 曹溪宗 第十四敎區本寺 梵魚寺, 1989, 『앞의 책』, 204쪽

26) 옛터건축, 2010,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해체수리공사 보고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55~67쪽

27) 大韓佛敎 曹溪宗 第十四敎區本寺 梵魚寺, 1989, 『앞의 책』, 427~429쪽

28) 大韓佛敎 曹溪宗 第十四敎區本寺 梵魚寺, 1989, 『앞의 책』, 268쪽

묘년은 1891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의상대사 진영이 1767년에 제작된 것이므로 경자갑계보사비 속에 언급된 의상조사 진영을 조성하였다는 기록과는 서로 별개의 사항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범어사 천왕문 앞 향우측에 건립되어 있는 병자갑계보사단 보사비에도 阿彌陀佛碑와 함께 원효·의상대사 양 대화상 진영을 新造하였다는 보사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이 刻字되어 있다.

「丙子甲稷補寺壇 阿彌陀佛碑新造 元曉義湘兩大和尚 眞影新造 十王展彩入沓三百斗 東谷堂知訓 西輪堂攸寬 雲潭堂典聰 海雲堂洺宸 錦虛堂宇璘 枕松堂戒彥 雨華堂晟奎 金谷堂在璉 雲菴堂成潤 應虛堂平和 鶴菴堂鳳璇 前和尚能文 前和尚善雲 時和尚平允 前和尚能善 前佛尊善寬 前佛尊戒聰 前和尚惠寬 前和尚明俊 前和尚尙旻 會允 永元 士允 琦哲 斗涓 世文 允哲 都監應化堂儀哲 前僧統戒寬 崇禎紀元後四癸亥八月日」

이 병자갑계보사비는 승정기원후 4 계해(1863) 8월에 건립하였으므로 원효와 의상대사의 진영 역시 1863년에 새롭게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에 현존하는 고승진영 중 원효와 의상대사의 진영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 1폭씩 전한다. 특히 의상대사진영은 화기에서 乾隆 32년(1767)에 조성하였음을 묵서하고 있어 조성연도가 명확하다. 따라서 1767년은 승정기원후 3 丁亥년에 해당되므로 경자갑계보사비와 병자갑계보사비에 언급된 진영과는 별개의 작품이다. 다만 원효대사진영의 경우 현재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어져 왔는데 병자갑계보사비에서 1863년에 신조하였다는 기록에 의거해 진영의 조성연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원효대사진영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도라든가 세부표현 양식 및 안료 색채 등에서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진영들과 유사하다. 이는 18세기에 제작된 진영에서 많이 확인되는 붉은색 바탕의 영제란에 금분이나 흰색으로 영제를 쓴 진영과는 달리 영제가 묵서되어 있는 점과 번잡하게 중첩된 의습 및 화면을 양분한 이단구도 등에서도 이 진영이 19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임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한다. 또한 1859년에 제작된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虎巖和尚眞影과는 구도라든가 자세 및 색채감에서 꽤를 같이 하고 있기도 하다.<사진 5>

다만 영제에서 해동불교의 초조이자 화엄종 강사로 칭송하여 존칭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조성하였던 여느 조사들의 진영들보다 더 신경을 써서 제작하였던 것 같다. 이는 얼굴 표현이라든가 번잡한 착의법과 중첩된 의습처리 및 형식적인 두 발의 표현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의자 형태와 당시에 많이 제작된 바닥가부좌상이 아닌 전신의좌상이라는 점, 등받이 범피의 연화당초문 문양과 화문석 아름다운 문양, 배경에 충전되어 있는 무늬 등에서 그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원효대사진영과 같은 초본을 사용했다고 할 만큼 가장 유사한 작품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450-51호인 九鳳堂智和眞影이다.<사진 6>

1878년에 제작된 이 진영은 측면관이라든가 등받이와 배경 처리 및 화문석의 무늬, 왼손 지물의 차이는 있지만 장삼과 가사, 가사끈 고리, 오른손과 왼손의 모습, 신발의 표현, 의자 및 족좌대 형태까지 원효대사진영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원효대사진영은 병자갑계보사비에서 밝히고 있듯이 당시의 보사 활동의 일환으로 1863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범어사에 소속된 승려들이 감계라는 사찰계를 조직한 후 그 보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범어사에는 보사 활동을 새긴 보사비가 전국 사찰 중에 가장 많이 남아있음과 함께 19세기의 경우 범어사가 지금과 사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할 만큼 감계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무엇보다도 2기의 보사비 속에 언급된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의 진영을 제작하였다는 내용에 주목한 후 현존 작품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이에 범어사 정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고승진영들의 현황과 함께 현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의 진영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1767년에 제작된 의상대사진영과 갑계보사비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만 알려진 원효대사진영의 경우에는 그 제작연대가 보사비에 새겨진 연도인 1863년에 조성된 것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고승을 그린 대부분의 진영들이 화기를 남기고 있지 않아 그 조성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승려들이 보사 활동을 위해 조직한 갑계와 그 보사비에 의해 진영의 기년명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 하겠다.

앞으로도 본 연구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불사 자료나 보사비가 발견되어 조성시기가 불분명한 성보문화재들의 정확한 조성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범어사소장 전적 및 유물 학술조사보고서』, 194~196쪽,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金甲周, 1983, 『朝鮮時代 寺院經濟研究』, 116쪽, 同和出版公社
- 김정희, 2010, 「조선후기 畫僧의 眞影像」 『강좌미술사』 35호, 70쪽,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大韓佛敎 曹溪宗 第十四敎區本寺 梵魚寺, 1987, 『梵魚寺誌』, 3~500쪽
- 동국역경원, 1970, 『한글대장경』 152, 244~245쪽
- 박은경, 2002, 「禪刹大本山 梵魚寺 소장 불교미술품」 『考古歷史學志』 17·18合輯, 605~630쪽, 동아대학교박물관
- 범어사성보박물관, 2002, 『범어사성보문화재 해설집』, 49~67쪽, 범어

사성보박물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2013, 『부산의 문화재』, 141쪽
- 세키노 타시(關野 貞), 1904, 『韓國建築調查報告』, 183쪽, 동경제국대학 출판부
- 오티터건축, 2010,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해체수리공사 보고서』, 55~67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 이봉춘, 2001, 「조선불교의 경제현실과 그 대응활동」 『대각사상』 제4집, 137~ 143쪽, 대각사상연구원
- 李載昌, 1993, 『韓國佛敎寺院經濟研究』, 194~276쪽, 불교시대사
- 조선미, 2007, 「조선시대 초상화의 유형과 특징」 『화폭에 담긴 영혼— 초상』, 77쪽, 국립고궁박물관
- 최춘욱, 2010, 「부산지역 고찰의 불화연구」 『博物館研究論集』 15, 137쪽, 부산박물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340~341쪽
- 韓相吉, 2006,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55~343쪽, 景仁文化社

투 고	심 사	완 료
2014.10.31	2014.12.5	2014.12.12

【국문초록】

조선의 승유역불 정책에 의해 사원경제가 거의 존폐의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戰亂에서 僧軍들의 활약은 불교의 위상을 재고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도 排佛은 계속되어져 승려들은 각종 공역이나 군역 및 제지·짚신삼기·누룩빚기 등의 수공예에 종사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승려들의 자구적인 활동도 생겨났는데 이는 수공예 등에 종사한 승려들이 축적된 생산 기술로 잉여물을 창출하여 사유전답 조성, 각종 계의 조직 및 운영한 후 이를 통한 補寺 활동과 佛事의 거행이었다.

조선후기 사찰계는 신앙활동을 위한 계와 보사 활동을 위한 계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甲契를 비롯하여 念佛契, 佛糧契, 燈燭契, 門徒契, 廳契, 지장계 등 모두 25종이다. 그중 사명대사 甲會文이 시초가 되어 조선후기 소속 사찰에 거주하는 동갑 또는 비슷한 연령의 승려들이 조직하였던 同甲契인 갑계가 대표적인 사찰계이자 가장 활발히 보사 활동을 했다. 특히 범어사 갑계의 경우 모두 25건이 조직되어 총 32번 보사 활동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보사 활동은 寺誌에 기록되어 있거나 補寺碑에 새겨져 있는데 범어사에는 현장조사 결과 총 13기가 현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범어사 천왕문의 출입 앞쪽 향우측과 측면 향좌측에는 1863년의 ‘丙子甲契補寺壇’과 1891년의 ‘庚子甲契補寺壇’의 보사비 2기가 있으며 이들 보사비에는 보사 활동의 일환으로 元曉와 義湘 두 高僧眞影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刻字되어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는 의상대사진영과 원효대사진영이 각각 1폭씩 소장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어 있는 의상대사진영은 絹本彩色에 右顔7分面の 全身倚子像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1767년에 제작하였다는 畫記가 있다. 범어사 소장 불화로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조성된 의상대사진영은 조선후기 19세기

에 정형화되는 고승진영에 앞서 제작된 진영일 뿐만 아니라 진영의 절대연대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원효대사진영 역시 견본채색에 좌안9분면의 전신의자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만 원효대사진영은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화기가 없어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없었다.

경자갑계보사비가 1891년에 세워진 것이므로 1767년의 의상대사진영과는 서로 별개의 사항으로 파악된다. 다만 병자갑계사비에서 1863년에 원효·의상대사 양 대화상 진영을 새롭게 조성하였다는 보사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원효대사진영은 구도라든가 세부표현 양식 및 안료 색채 등에서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진영들과 유사하다. 1859년에 제작된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虎巖和尚眞影과는 구도라든가 자세 및 색채감에서 꽤를 같이 하고 있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원효대사진영과 거의 같은 초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450-51호인 1878년의 九鳳堂智和眞影이다. 두 진영은 측면관이라든가 등받이와 배경 처리 및 화문석의 무늬, 왼손 지물의 차이는 있지만 장삼과 가사, 가사끈 고리, 오른손과 왼손의 모습, 신발의 표현, 의자 및 족좌대 형태까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원효대사진영은 병자갑계보사비에서 밝히고 있듯이 당시의 보사 활동의 일환으로 1863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조선후기 제작된 고승진영들이 대부분 화기가 없어 정확한 조성연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갑계보사비에 의해 그 기년명을 알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 범어사, 조선후기, 보사 활동, 불사, 사찰계, 갑계, 보사비, 고승진영, 의상대사진영, 원효대사진영

【Abstract】

A Study on the Portrait of Monk and Temple-aiding stele of Traditional private fund by Coequality(*Gap-gye*) in the Beomeosa Temple

Choi, Chun-uk /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Appraisal

Because of the policy of pursuing-confucianism and suppressing-buddhism(崇儒抑佛), the Buddhist temples in the Joseon dynasty faced tremendous economic difficulties and was driven out the risk of maintenance or abolition. But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Japanese [*Hide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壬辰倭亂), monks begun to restore buddhist to its rightful place. Nevertheless, Joseon government consistently keep the policy of suppressing-buddhism(抑佛)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 caused monks to work in the fields of public service, military service, paper manufacture, straw shoes manufacture, liquor manufacture etc. In this poor condition, they earned lots of money through creating the extra products and bought private paddy fields. They also organized many kinds of traditional private fund of temple(寺刹契). With those fund, they made a temple-aiding activities(補寺活動) or performed a Buddhist-serving ceremony(佛事儀式).

Temple fraternities(寺刹契) in the late Joseon dynasty basically categorized into two main groups : one for religious activities(信仰活動) and the other for temple-aiding activities. There are twenty-five kinds of temple fraternities : for example, included traditional private fund by coequality(*Gap-gye*:甲契), *Yeombul-gye*(念佛契), *Bulyang-gye*(佛糧契), *Deungchok-gye*(燈燭契), *Mundo-gye*(門

徒契), *Cheng-gye*(廳契) and *Jijang-gye*(地藏契). Among them, Gap-gye as a traditional private fund by coequality(同甲契), which was initiated from *Gapmuimun*(甲會文) by Monk Samyeong(四溟大師), was one of the most active and representative temple fraternity. Especially, it is said that *Gap-gye* of Beomeosa temple (梵魚寺), Busan had been organized twenty-five times, and had had thirty-two times of temple-aiding activities. These temple-aiding activities was written into the temple-historic records(*Saji*:寺誌) or inscribed on the stele of temple-aiding. As a result of an on-the-spot survey, thirteen steles of temple-aiding which still exist today was found in Beomeosa temple. In addition, there are two steles of temple-aiding on the both side of the temple gate dedicated to the four Devas(*Cheonwang-mun*:天王門), which was respectively built in 1863 and 1891: one is called *Byeongjagapgye-bosadan*(丙子甲契補寺壇) and the other is called *Gyeongjagapgye-bosadan*(庚子甲契補寺壇). On the surface of two steles, it was inscribed that the potraits of Monk Uisang(義湘) and Wonhyo(元曉) were painted as a activity of temple-aiding.

The museum of Sacred treasure(聖寶) in Beomeosa temple contains the portraits of Monk Uisang and Wonhyo. The portrait of Monk Uisang which was designated as a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55 of Busan was painted in 1767 according to its own painting record(畫記). He is depicted in three-quarter profile and seated in the chair with colour ink on the silk. It is one of the earliest products among the portraits which housed in Beomeosa Temple. The portrait of Monk Uisang has the importance in the aspect that it was painted before the monk portrait didn't have a standard pattern yet and also had the

specified era. The portrait of Monk Wonhyo is depicted in three-quarter profile and seated in the chair with colour ink on the silk as well. But it doesn't have a specified era, only known as produced in the 19th century.

Gyeongjagapgye-bosadan which was built in 1891 has not associated with the portrait of Monk Uisang which was painted in 1767. But *Byeongjagapgye-bosadan*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material due to its temple-aiding record that the portraits of Monk Uisang and Wonhyo were newly painted in 1863. The portrait of Monk Wonhyo has the similarity to those painted in the late 19th century in the aspect of composition, expression of details and colours. Especially, it bears the strong likeness to the one of Monk Hoeom(虎巖和尚) which was painted in 1859 and housed in the museum of the Sacred treasure in Tongdosa Temple(通度寺) in terms of composition, posture and colours.

The portrait of Monk Gubongdang-Jihwa(九鳳堂智和) as a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450-51 of Gyeongsangnam-do(慶尙南道), which was painted in 1878 and housed in the museum of the Sacred treasure in Tongdosa Temple, seems to use the same underdrawing as that of Monk Wonhyo. These two paintings has the nearly same characteristic in the aspect of three-quarter profile, the conduct of the background, details of garment, posture, the shape of shoes and chair.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 portrait of Monk Wonhyo was painted in 1863 as inscribed on the temple-aiding stele built in the year of *Byeongja* (丙子:1863). Considering that there are many portraits of monk without a specified era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temple-aiding stele can be interpret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which shows the specified era of Monk portrait painting.

Key words : Beomeo-sa temple, Late Joseon dynasty, Temple-aiding Activity, a Buddhist service, Traditional private fund of Temple, Traditional private fund by Coequality(*Gap-gye*), stele, Portrait of Monk, Portrait of Monk Uisang, Portrait of Monk Wonhyo